

사드 무풍지대…럭셔리 국산화장품의 힘

중국시장서 선전하는 '뷰티 코리아'

LG생건 후·숨 강세…2분기 75% 성장
항저우에 오휘·VDL·빌리프 매장 오픈
아모레퍼시픽도 전년비 매출 12% 업

이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국내 뷰티업계는 중국 현지 매출이 오히려 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롯데마트나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와 달리 국산 뷰티 브랜드들은 중국 현지 시장에서의 성장률 반등과 럭셔리 브랜드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의 경우 후와 숨 등 럭셔리 브랜드의 꾸준한 수요창출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분기 중국 현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1%나 성장한 648억원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2분기 중국 현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고, 3분기에도 20%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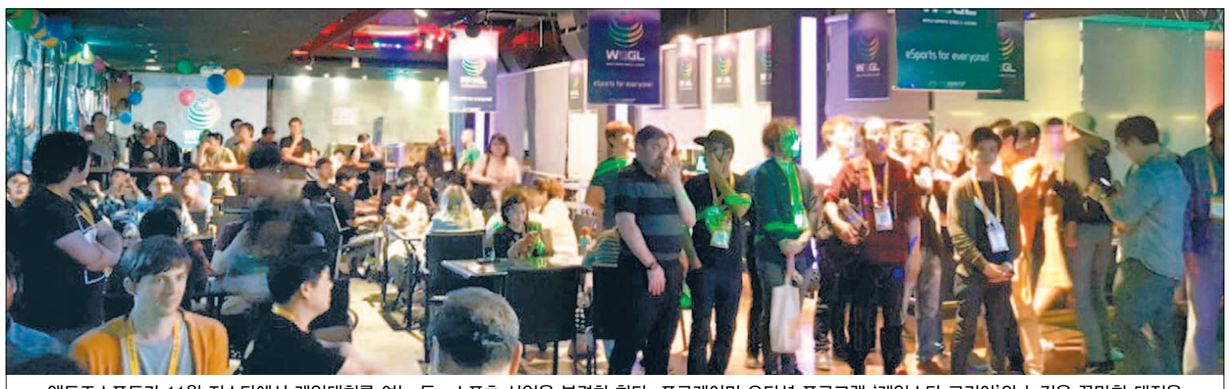
최근 중국 항저우 소재 우린인타이 백화점에 오픈한 LG생활건강의 오휘·VDL 매장 모습. 사진제공 | LG생활건강

뷰티업체들은 이런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중국 항저우 우린인타이 백화점에 오휘, VDL, 빌리프 브랜드 매장을 오픈, 중국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후와 숨에 이어 이번 매장 오픈으로 LG생활건강의 5대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를 모두 중국 현지에 론칭했다.

면세점이나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써 본 중국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시장이 확대됐고, 이런 수요가 현지 매장에서 제품을 만나고 싶은 니즈(needs)로 이어지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이라는 게 LG생활건강측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큰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보다 다양화해 경쟁력을 올린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LG생활건강 측은 "사드보복 영향으로 방한 관광객이 줄면서 내수시장에서는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에서는 꾸준한 성장이 이어졌는데, 이는 중국 내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화장품은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만큼 기존 제품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한국방문 기회가 줄어 제품 구매가 힘들어진 만큼 현지 매출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액토즈소프트가 11월 지스타에서 게임대회를 여는 등 e스포츠 사업을 본격화 한다. 프로게이머 오디션 프로그램 '게임스타 코리아'와 눈길을 끌만한 대전을 성사시키는 '슈퍼파이트' 등도 준비하고 있다. 9월 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한 BIC 엔딩 파티에 참가한 세계 인디게임 개발자들. 사진제공 | 액토즈소프트

e스포츠판 '메이웨더 vs 맥그리거'…액토즈의 도전

11월 지스타서 12개 종목 대회 개최
프로게이머 오디션 프로그램 내년 론칭
인디게임 e스포츠화 등 새로운 시도

게임

7월 자체 e스포츠 브랜드 'WEGL'을 공개하며 주목받은 액토즈소프트의 e스포츠 사업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달 랜파티 형식의 '오버워치' 여성대회 '올 포 레이디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하스스톤'과 '마인크래프트' 등 종목의 예선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는 300부스 규모의 프리미어 스폰서로 참가해 12개 종목의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메인급 종목도 곧 베일을 벗고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든 종목 결승은 지스타 WEGL 무대에서 펼쳐진다.

액토즈의 e스포츠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통적인 대회방식은 물론이고 그동안 시도가 없었던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다. 먼저 팬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이슈가 될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e스포츠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프로게이머 오디션 프로그램 '게임스타 코리아'를 내년 론칭할 예정이다.

팬들이 열광할만한 '슈퍼 파이트' 대전도 있다. 지스타에서 열리는 WEGL 파이널에 하스스톤, CS:GO, 철권7 등 각 종목을 대표하는 해외선수를 초청해 국내 정상급 선수들과 매치업을 성사했다. 슈퍼 파이트 이벤트를 통한 액토즈의 궁극적인 목표는 'e스포츠 프로모터'. e스포츠판 '메이웨더 VS 맥그리거'로 전세계 e스포츠 팬들을 들끓게 할만한 '판'을 만든다는 얘기다. 스토리를 만들고 신인 선수 발굴 등 새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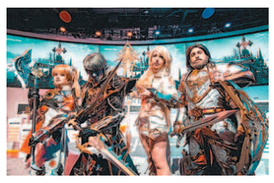
인디게임의 e스포츠화 추진도 눈여겨볼 만한다. 액토즈는 9월 열린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BIC)에서 '베스트 멀티 플레이상'을 받은 '루프레이지'의 e스포츠 대회를 지스타 WEGL 부스에서 진행한다. 다양한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루프레이지 외에도 3종의 인디 게임의 대회를 지스타 현장에서 펼친다. 액토즈는 향후에도 WEGL을 통해 인디게임 e스포츠를 위한 컨설팅과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종목다변화도 도전하는 분야다. 국내 e스포츠 시장은 스타크래프트부터 현재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리그오브레전드까지 여러 종목들이 흥망성쇠를 겪었다. 하지만 일부 종목에만 관심이 쏠려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다.

액토즈는 '마인크래프트' 종목으로 가능성을 봤다. 1차 예선 동시시청자수가 6만명에 달했고, 2차 예선에 접수한 참가자는 2000명을 돌파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종목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셈이다. 액토즈는 향후에도 e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해 힘쓰는 한편 국산 게임의 e스포츠화 활성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넷마블 '레볼루션' 11월15일 글로벌 출시



넷마블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트위치콘 2017'에서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사진)을 11월 15일 글로벌 출시한다고 공개했다.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의 54개국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한다. 9월13일부터 시작한 사전예약은 한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넷마블은 글로벌 이용자들을 위해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다. 일부 캐릭터와 장비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버추얼 패드는 화면 절반 크기로 확대해 조작이 쉽도록 했다.또 파티 중심의 레이드 콘텐츠를 강화하고 혈맹 콘텐츠는 난이도를 조정했다. 한편 레볼루션은 6월 아시아 출시 8일 만에 6개국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최고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일본에선 8월 출시 18시간 만에 앱스토어 최고매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소니 신규 카메라 2종 국내 출시

소니코리아는 세계 최소형 풀프레임 카메라 RX0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망원 카메라 RX10 IV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RX0는 1.0 타입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 중 세계 최소형 사이즈를 자랑한다. 110g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와 가로 59mm, 세로 40.5mm, 폭 29.8mm의 초소형 사이즈로 수심 10m까지 자체방수가 가능하고, 2m 높이의 낙하 충격 및 200kgf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 RX10 IV는 24-600mm F2.4-4의 초망원 자이스 바리오 조나T 렌즈를 탑재하고, 0.03초의 AF 속도와 동체 추적 24연사 및 315개의 위상차 AF 포인트를 적용한 새로운 플래그십 카메라다. 소니스토어 판매가는 RX0가 99만9000원, RX10 IV는 219만9000원이며, RX0는 11월3일부터, RX10 IV 는 10월24일부터 공식 판매한다. 김명근 기자

오비맥주 '카스', 스크린 야구 대회 개최

일반인 대상…다음달 1일 예선전 시작

오비맥주는 스크린 야구 브랜드 스트라이크존을 운영하는 (주)뉴딘콘텐츠와 함께 11월과 12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카스포인트배 스트라이크존 전국 대회'(사진)를 개최한다.

'카스포인트배 스트라이크존 전국 대회'는 전국 스트라이크존 매장에서 펼쳐지는 스크린 야구 대회다.

평소 야구를 즐기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예선전 참가를 원하면 2명 이상 팀을 구성해 전국 스트라이크존 매장에서 '공식대회' 모드를 이용하면 된다.



전국 6개권역별 1위를 차지한 팀과 와일드 카드(2개 팀)를 획득한 팀에게 본선 진출권이 주어진다. 권역 별 최다 득점을 달성한 상위 30개 팀에는 득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본선은 12월9일 스트라이크존 서울 종각 직영점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제31회 사선녀선발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사선녀들이 23일 서울 청계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동아일보 안철민기자 acm08@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3일

코스피지수	2490.05	▲	+0.51
코스닥지수	675.86	▲	+2.91
日 닛케이 지수	2만1696.65	▲	+239.01
中 상하이 종합	3380.70	▲	+2.0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3	▼	-0.06
환율 (원 · 달러)	1131.00	▼	-1.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3698.06	▼	-275.65

오늘의 얼굴

이동걸 회장 "나는 낙하산 아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낙하산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보다는 철학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한진해운 파산 1년을 맞아 해운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과거 개인적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서의 경쟁력 평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며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다운사이징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비즈 TALK TALK

● **"5년 내 인상없다, 전기료 인상시 한전이 감당"**(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 **"5회 금리 인하가 경기 모멘텀 살리는데 기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 "디플레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가액 부적절, 시장에 맡겼어야"**(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수합병(M&A) 대상기업의 합병가액을 법에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데이터 경제

9월 방한외래객,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

중국 관광객 감소를 중심으로 관광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23일 발표한 9월 관광통계에 따르면 9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중화권 방문객만 증가했고, 그 외 주요 국가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그 결과 9월 전체 방한객은 107만86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2%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감소세는 조금 둔화됐으나 여전히 전년에 비해 56.1%나 줄었다. 일본과 홍콩 등은 6% 전후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중동지역과 구미주 지역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으로 방한심리가 둔화돼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9월
주요국 방한시장 입국 통계

